

타이 Chandra Asri 경영권 매각

거래액 7100만달러 ... Peni의 가동중단으로 Chandra 생산차질

타이 Glazer & Putnam Investment는 IBRA(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의 PT Chandra Asri 지분 29.5%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Glazer & Putnam은 Chandra Asri의 IBRA에 대한 부채 1억달러 뿐만 아니라 IBRA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채권은 Chandra Asri 창립자인 Prajogo Pangestu 소유의 투자기업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총 거래액은 6020억루피아(71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Chandra Asri는 1990년대 초 Marubeni를 비롯한 일본 투자자들과 Prajogo 및 Banbang Trihatmodjo 등 인도네시아 주주들로 결성된 컨소시엄의 재정적 지원 아래 설립됐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IBRA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Chandra Asri의 파산으로 Chandra Asri의 지분을 인수하게 됐는데, Prajogo는 투자기업을 통해 Chandra Asri의 지분 49.5%를 계속 보유할 수 있었으며 일본기업들이 나머지를 소유하게 됐다.

Chandra Asri의 화학제품 생산능력

(단위: 1000M/T)

에틸렌	520
프로필렌	240
Pygas	216
HDPE/LLDPE	200
HDPE	100

자료) Chandra Asri

Chandra Asri는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언론의 비평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막대한 금융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IBRA는 인도네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됐으며 이후 Chndra Asri의 부채를 인수했다. IBRA와 Marubeni는 2002년 Chandra Asri의 부채에 대한 공동 구조조정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일본 투자자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handra Asri의 부채 1억47000만달러와 지분을 맞교환했다.

Chandra Asri의 인도네시아 Celegon 플랜트는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에틸렌(Ethylene) 스트림 크래커로 생산능력이 총 52만톤에 달한다.

Chandra Asri는 PE(Polyethylene) 생산기업인 PT Peni에 에틸렌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PT Peni는 BP가 2003년 초 투자기업인 Indika Group에 매각한 바 있다.

한편, Peni는 재고감축을 위해 2003년 9월 말 PE 플랜트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나 이에 따라 Chandra Asri가 에틸렌 크래커 가동을 중단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24>